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합동 연설회·TV 토론회 쟁점

“여론조사 보도 왜 막았나” “전화 한통화 한 적 없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관한 TV 토론회와 합동연설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각 후보자 간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강운태·이용섭·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은 지난 3일 광주 MBC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4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합동연설회’에서 ‘여론조사 외압 여부’와 ‘과거 경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 후보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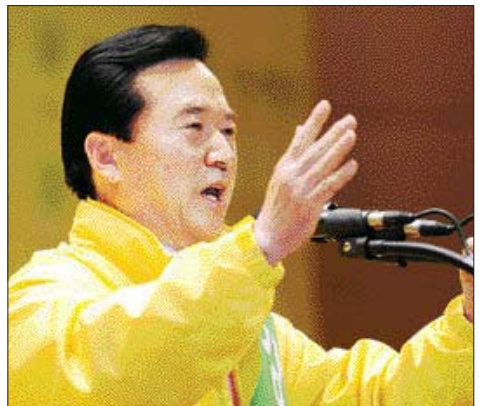
◇“내가 적임자”=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은 자신이 광주시장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시민이 원하고 당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 광주발전을 위해 벽을 하나라도 세운 사람, 지난 10년 민주당에서 광주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나는 관선 광주시장 당시 삼성과 LG, 아남반도체를 첨단 단지에 유치했고, 광주비엔날레를 창설하고 김치축전을 만드는 등 첨단과 문화라는 두 기둥을 확실히 세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여론조사 외압 논란=이용섭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회에서 “최근 광주지역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후보의 압력에 따라 보도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사주나 간부들에게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두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미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후보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강 후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냐.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는 “설계 당시 랜드마크 논란으로 1년 지연된데 이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는 란으로 1년3개월 지연됐지만, (자신이) 설계지침을 바꿔 5·18 관련 건물들 모두 보존시켜 줬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강 후보와 정 후보에게 “문화수도 공약이 만들어진 것을 놓고 두 분의 서로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의를 했다고 하는 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으며, 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광주 선대위원장 시절 공약에서 이동하는 자리에서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3천여 참석자들이 박수와 연호로 지지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강운태

“삼성·LG·아남반도체 유치
광주 첨단·문화 기틀 놓았다”

이 후보는 “광주시민이 민주당 10년을 만들어줘 저는 관세청장과 국제청장, 행사부장관, 건교부장관을 지냈다”며 “오랜 경제부처 경험이 있는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시장의 최적임자이며, 세 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도덕성을 검증받은 유일한 후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1980년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맞서 투쟁을 했고, 총재 비서실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3년6개월간 모셨으며,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계승한 사람”이라며 “문화수도를 통해 광주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내가 광주시장으로서 최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 이용섭

“사회서비스 모범도시 건설
일자리 5만여개 만들겠다”

이 의원은 재차 “신문사 사주나 간부들에게 전화 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 나중에 밝혀지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했고, 강 의원은 “왜 이리 조급하냐. 전화를 안 했다면 안 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여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이 후보는 4일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광주시장 후보가 여론조사를 막았다. 어떻게 인권을 통제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론조사 미공개 문제를 또 한 차례 꼬집어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TV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비전과 관련해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 강 후보는 정 후보를 상대로 “애초 올 해 5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완공기로 해놓고 2014년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나?”라고 물었다.



■ 정동채

“80년 5·18때 신군부와 투쟁
문화수도 광주발전 초석 다져”

노 대통령에게 문화수도 공약을 건의해 채택됐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강·이 후보에게 “국회 예결위원이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예산이 줄줄이 누락된 데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따졌다. 두 의원은 4대 강 예산투쟁으로 세무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일자리 창출=각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강 후보는 “2014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고용률 60% 수준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와 청년실업 해소책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창출 범시민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경제구조를 바꿔 대기업이 아닌

첨단소재부품, 서비스, 문화관광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문화수도와 관련된 문화산업을 통해 6만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광주를 사회서비스 모범도시로 건설해 5만 명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평화도시, 고용평가제, 시장직속 일자리창출 지원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상대 후보 측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구체성이나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과거 전력 시비=정 후보는 강·이 두 후보의 1980년 당시 행정과 청와대 사정비서관 재직 등을 물었다. 또 정 후보와 이 후보는 강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는 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인 강 후보와 이 후보를 비난했다. 강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조선인 국회의원이 광주시장직을 도전하는 게 적절하지 지적했고, 정 후보에게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의정활동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 후보는 “공직생활에 충실했을 뿐이고 당적이 바뀐 것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두 후보와는 달리 3번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검증을 받았고 지금이 광주시민들을 위해 보답할 때라고 생각해 출마하게 됐다”고 답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지지자 후보따라 우르르 ‘동원 연설회’

4일 오후 3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지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하지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통보가 없어 사실상 각 후보들의 ‘동원 연설회’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연설회는 각 후보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각 후보 측 지지자들은 노란색과 분홍색, 녹색 티셔츠를 입고 후보들의 이름을 목청껏 연호하는 등 마치 경선장을 방불케 했다. 행사장 내에서도 각 후보 지지자들은 상대 후보 측에 뒤지지 않기 위해 목청껏 후보를 연호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의 연설이 끝나면 모두 자리를 뜨는 등 ‘셀물’처럼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구태를 반복해 ‘동원’ 의혹 등으로 일부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각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후보자들의 약력과 살아온 길을 담은 영상이 5분씩 방영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 후보는 과거 관선시장 시절 화면 등을 적절히 섞어 광주시장 자질을 부각했고, 이 후보는 자신의 장관 재직시절과 국회 의정활동의 화면을 포함시켜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담쟁이’를 강조했다. 정동채 후보는 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두 전 대통령과 함께한 사진과 영상,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공 등의 사진을 담았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2010학년도 광주 바이블칼리지 신입생 모집. 한국 신학교 기독교 청년 리더를 위한 영성지음클럽이니까 꼭 개설! 마지막시대의 마지막 부르심!

과목	시간	세션	담당교수	신청기간
영성지음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영성지음클럽	김영희	3월 29일~4월 15일
영성지음클럽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영성지음클럽	김영희	3월 29일~4월 15일
영성지음클럽	매주 금요일 저녁 7시~9시	영성지음클럽	김영희	3월 29일~4월 15일

광주바이블칼리지